

2020 년 11 월 19 일 선교소식—베네수엘라와 쿠바한인후예(손)들 소식

이 어려운 때 어찌 할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10)

전에 경험하지못한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며 이길수있도록 전술과 전략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입니다. 저에게는 쉼의 시간을 주시어 베네수엘라와 쿠바선교의 발자취를 회상하며 기록 할 시간을 주십니다. 아멘!

베네수엘라/꾸마나에서 온 소식

베네수엘라는 청정지역이었다. 3 월 말 까지는. 그러나 COVID19 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소리없이 강타하며 베네수엘라까지 도착하였다. 동부지역 꾸마나까지. 신학교 대면강의를 할 수 없게되었다. 교회예배가 중단되었다. 백성들이 아우성이다. 정부는 11 월 1 일부로 예배를 허가했다. 카리브복음 신학교에 설치한 케이블 TV 강의와 예배에 도움되도록 기도한다. 모든 거래는 달러화되었다. ATM 현금인출기가 대도시에 설치되었으나 현찰이었다. 달러구좌 갖인자는 현금화가 가능하지만 0.2-03% 수수료를 지불해야한다. 은퇴자들의 사회보장연금(INSS)은 월 \$700(2000 년)에서 현재 \$4 불 정도다. 가정 요리용 개스(5L)값은 미화 \$40 불 정도이다. 자동차 휘발유값은 리터당 \$2 불정도다. 석유매장량은 세계 1 위이지만 정유공장이 가동되지않는다. 이란석유가 도착하여 \$0.5/L 이지만 줄이 길고 20 리터만 구입가능하다. 충성카드를 갖인자는 현지화폐 보리바르로 구입이 가능하지만 2-3 일 줄을 서야한다. 충성카드 갖인자에게 현금보조와 식량도 공급한다. 공산주의 나라구나! 베네수엘라 해양연구소 은퇴연금이 \$4K 사천여불에서 \$12 불로 줄었다, 군 3 성 장군의 월급도 \$18 불정도다. 사회주의정책 20 년의 산물이다. 달러환율 Bs.4.3/1\$에서 Bs.775K/1\$로 치솟았다.



제일침례교회는 우리가 처음 살던 로스차이마 아파트에서 1978 년 8 월 시작하여 1980 년 12 월 20 일 17 명으로 조직하였다. 2020 금년에 40 년이 되었다. 현재 에프란-이예구에 (카리브복음신학원 목회학석사) 목사가 봉사하고있으며 라디오 FM 방송국 운영하며 케이블 TV 채널 63 FE 도 운영한다.

쿠마나에서 모범적으로 성장하고있다. 팬데믹중 마스크쓰고 예배하다(11 월 2 짜 주). 할렐루야!
해양연구소 대학원 원장으로 봉사할때 오리엔떼대학 의과대학에 입학시킨 마리아-에르난데스
학생이 어린이사역과 지역 의료사역을 돕는다.

저희들이 개척한 다른 7 개교회들(가나안침례교회, 중앙침례교회, 가이구이레 예수선한목자 교회,
야나다 연합샘물교회, 드레스빠꼬 새생명교회, 브라실술 연합예수인교회, 예수생명교회)등이
어려운 가운데도 성장하며 지역사회에 봉사하고있다. 왜? 모든교회가 예배당이 있다. 예배당이
있는교회는 후대까지 존재하나 예배당이 없는교회는 없어졌다고 하네요 (김세복 DMin). 할렐루야!

저희는 교회개척 시작할때부터 교회부지와 가 건물로 시작하였다. 70 년대 80 년대 베네수엘라의
엄청난 지하자원활용과 경제성장 또한 5 년제 대통령 단임제로 자유민주주의로 나라가 번영한 때
였다. 저를 베네수엘라 해양연구소 연구교수로 보내고 좋은보수로 여유로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드린다.

카리브복음신학원소식

베네수엘라 카리브복음신학원은 골든게이트신학원 MDiv 졸업한 후 DMin 프로젝트로 2005 년 9 월
17 일 개원하여 지금까지 특수과정(10 주), 신학사과정(4 년), 목회학석사과정(3 년)에 총 400 여명이
졸업하였다. 특히 신학사와 목회학석사 과정은 매릴랜드 신학대 신학대학원 (Maryland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학장 안준식 박사)의 학사협정 배려로 매릴랜드 신학교 졸업장과 영사인증
(Apostillos)으로 카리브복음 신학원의 존재가치를 Upgrade 하였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정상적 수업이 중단되어 신학교사역에 어려움이 더해졌다. Zoom 줌 영상강의나 Goole Meeting 구글
영상강의를 위하여 학생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소유하도록 도움을 주고있다. 이번에 7 명에게
셀폰을 선물 하였다. 카리브복음신학원에 케이블 TV 알파와 오메가 (A&Ω)를 설치하였다. 해별대
해간 33 기 동기생 철맥회원들이 장비와 시설비로 도왔고 또 콩코드침례교회가 학생운영장학금을
보태었다. 처음예산이 광케이블 \$2400 불정도 이었으나 영상실 인터뷰실등으로 \$5K 오천여불로
불어났으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셨다. 금년 7 월 25 일에 6 명의
신학사와 5 명의 목회학 석사와 4 여명의 특수과장 졸업식을 거행하였다. 초청자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며.

이번 가을학기에는 71 명이 등록하였다. 대면강의 PRESENT 온라인강의 ONLINE 통신강의 DISTANCE
CLASSES 병행함. 특수과정과 학사과정은 모나가주 샌호아킨(7 명 등록) 안소아테기주 아나꼬(10 명
등록) 수그리주 까리아코(10 명 등록)에서 병행한다. 꾸마나 캠프에서는 모든과정이 오픈한다.
할렐루야!



카리브복음신학원 쿠마나 캠프서 모습: 1KM2 대지와 교실 16 개 16 인승 학생통학용 버스운영. 요즈음 개스구입이 힘들다고하네요.



케이블 TV 알파와 오메가 방송실과 인터뷰실 모습: 마르카노(실장) 호세그레고리오, 호세카리아코, 마리엘라 아리스띠문뇨(위원들이) 봉사한다.



쑤끄레주 카리아코 캠프스 안헬마이스는 4 년간 쿠마나 캠프서에서 기숙하면서 주말에는 카리아코 침례교회를 봉사하면서 학사과정을 이수하였다. 남미 목사님들 중 아주 열성파로 까리아코시에 분교를 설치하여 특수과정을 2 년정도 개강한 후 드디어 2019 년에 학사과정 설치하여 10 여명을 가르치고있다. 쿠마나 교수들이 원정강의도 하며 지원한다.

쿠바한인후예(손)들 소식

쿠바한인후손들 사는 마을/도시



서부: 아바나 284명, 마따사스 261명, 까르데나스 291명
 중부: 씨에고데아빌라 25명, 까마구이 141명
 동부: 마나띠 51명, 홀긴 56명, 마르까네 73명

쿠바한인후예들은 1921 년 3 월 25 일 280 여명이 에니깁 농장 농부들로서 벅시코 유카탄 반도에서 쿠바 사탕수수 농장경기 호전으로 쿠바에 이민온 한인후예들 1 세와 2 세 자손들이었다.동부항구 마나띠 항구에 입항하여 한인촌을 형성하며 살았다.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꾼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국제사탕수수 원당가격 하락으로 당시 에네깡 농장이 있던 마탄사스로 이주하여 집단 한인촌을 형성하여 살다가 각처로 이주하여 8 개 지역에 생활터전을 이루고 살고있다.

가족이야기



딸 원아와 아들 석구가족들(손주 5 명) 사위 이테리후손 미국인 며느리 대만후손 캐나다출신(외편 사진) 우리가족은 국제가족화 되었다. 코로나시대 정경석/금자 선교사(중) 81 회 생일 축하 해주는 휴스턴교회 DRS. JINSUP PARK & YANG O. HUH 박인섭 집사님 내외에 감사.

Petición de Oraciones 기도제목

1. 베네수엘라 경제위기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 정치위기 (독재정치) 생명위기 (코로나 19) 생활위기 (억만% 인플레이션) 극복하도록. 12 월 6 일 국회의원 선거 잘 치루어지도록. 야당 후보들이 불참운동 하다.
2. 카리브복음신학원 케이블 TV 개설로 복음전파에 도움되고 학생들 온라인강의 가능하여 베네수엘라 목회자양성 주축되도록. 모든시설이 현지인들에게 인계되고 신학교가 알파와 오메가대학으로 분교부에 등록되도록
3. 쿠바한인후손들 복음전도로 생명길 선택하고 어려운 생활환경 가운데도 굳건히 믿음생활 계속하여 천국의 기쁨을 향유하도록.
4. 쿠바입국 선교탄압 완화되고 8 개지역 1230 여명의 한인후손들 섬기는 가정교회 지도자 형제들 제자훈련 청소년훈련수련회(은혜와 평강교회) 가능하도록.

Contacto 연락처

- Venezuela 베네수엘라: Seminario Evangelico del Caribe 카리브복음신학원. Calle Niquitao #42, Cumana, Venezuela. Rev. Kyung Suk Chung 정경석 email: kyungsukchung@yahoo.com +53 0414-773-1443, 0412-305-0190
- Cuba 쿠바 +53 55.79.32.63. kchung@nauta.cu
- USA 미국 +1 415-712-6023 kyungsukchung@gmail.com 555 10th St. Apt. #201, Oakland, CA 94607 카톡 KSCHUNG0223 whatsapp 통화가능
- 웹: www.seminarioevangelicodelcaribe.blogspot.com 구웹으로 신학교 정보가능. 업그레이드

쿠바한인후손들의 이야기(새로운 방문자들을위한 종합소식)



마나띠 항구: 1981 년 3 월 25 일 280 여명이 상륙한 어항. 2001 년 3 월 25 일 세워진 기념비가있다.



마나띠 시: 한인후손들 50 여명이 살고있으며 완전히 쿠바인으로 동화되었다. 에스민다가 한인지역 회장과 가정교회 목녀로 봉사하며 30 여명이 가정교회를 이루어 행복하게 살고있다. 정 선교사 81 회 생일잔치도 배풀어주었다. 10 명에게 침례를 주었다.



마르까네 시: 한인후손들 중 환경이 가장 열악하다. 아직도 야외변소가 있다. 프라시스카김이 목녀로 셀시오김 (삼촌)이 지역한인회장으로 가정교회에 30-40 여명이 모인다. 재작년에 5 명이 침례받았다. 훌긴 일파와 오메가 성경학교에 보낼 청소년을 찾고있다.



훌긴 시: 아직 가정교회가 현성되지안았지만 방문때 마다 함께 모여 교제하며 복음을 전한다. 동부에서 2 번째 큰 도시로 위생시설이좋아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 음료수 마실수있다.가정교회 장소를 물색 중이다. 페릭스 킹(김)이 지역회장이다. 부인이 아프리카 토속종교인 산대리나를 믿는다. 아직 복음을 받아드리지안는다.



홀긴시에서 가정교회를 세우려고하지만 쉽지않다. 아나마르띠네스집이 너무 협소하여 다른곳을 물색중이다. 오토바이로 일을보고 80년 생일잔치도 하였다.

중부지역 까마구이: 한인후예들 140여명이 산다. 가정교회에 20여명이 모인다. 산드라 김이 목녀다 (사진 하 좌). 지방회장은 베르다김인데 고등학교 교사로 은퇴하였다 (좌 우편 사진) 예수님 제자로 성장하도록 기도 중.



씨에고데아빌라: 25명 전부 1가족 김씨 자손들이다. 아바나와 서부와 동부 중간지점으로 방문이 쉽지않다. 다닐로 (하 중앙)가 한인회장 가정교회 목장을 맡고있다. 작년에 2명 (다닐로와 동생 마르가리따)가 침례받았다.



까르데나스: 한인후예 도시 중 가장 많은 290여명이 산다. 아델라이다 김이 한인회장과 가정교회 목녀디. 남편 호세는 공군중령출신으로 예편 후 국유전화회사 액테사 까르데나스 지점장이다. 한국방문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다.



까르데나스 제일침례교회와 더불어 한인후예들 가정교회 한인후손들 모임도 활발하다. 코로나 열병으로 생 풀수품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 지금까지 버텨온것이 주님 은혜로다.



마딧사스: 한인후예촌이 엘볼로에 정착하였다. 좀 리버탈한 여러교단이 연합한 신학교가 오래동안 봉사 하고있다. 한인후예회 회장은 임은조 동생 장로인 마르다임이 맡아오다가 외유로 감당하기 힘들어 토마스호모레노 젊은 후손이 맡는다. 현 토마스 회장은 가정교회 모임에 관심이없다, 안헬라모니까 다빌라 박 가정교회 목녀(위 사진 우 중앙)가 지난번에 9 명의 형제들과 함께 침례를 받았다. 청소년들이 많아 캐나다 은혜과 평강교회에서 청소년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하고있다. 한인사회의 중심지였으나 그 역할이 현재 아바나 수도로 옮겨졌다.

수도 아바나 동부: 가정교회를 개척 중이다. 목사나바에뀐따나와 남편 호세루이스차콘이 3 딸과 아파트 1 층에 산다. 뒷 마당을 모임장소로 개조하려고 노력 중이다. 천불정도 예산으로. 아바나 침례대학장을 소개하여 가을학기예 등록하도록 도우는 중이다(사진 우편).



쿠바 전역 8 개 도시에 사는 한인후예들 1280 여명 중 침례받은자는 모두 36 명 정도다.

수도아바나=쿠바다



아바나 한-쿠바 우정회관: 쿠바한인회는 항상 존재하였으나 법적근거는 없다. 그러다가 1997 년 정선교사와 연결되어 새롭게 조직되면서 당시 5-600 명 정도에서 900 여명으로 여러곳에서 살던 한인후예들을 찾았다. 필요한 재정지원은 씨아틀연합장로교회(박영희 목사/강세흥 장로)가 후원하였다. 현명한 투자/지원은 2000 년 초에 문화선교사(카나다시민권자 이일성 부부)파송으로 한인후손들과 유대가 공고히되었다. 2000 년 초에는 쿠바의 한인들(Coreanos en Cuba) 이민사를 발간하였고 2001 년 3 월 25 일 마나띠 항구에 한인후예 입항기념비를 세웠다. 2004 년에는 일볼로에

한인정착촌 기념비를 세우고 한인후예들의 활동 중심지로 회복하려는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한인회장 임은조씨가 2008 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돌아가시다. 그 와중에 2005 년에 새로운 한인회를 김암펠로사장이 만들어 혼란스러웠지만 이제 모두 정리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현 한-쿠바우정회관은 점부지원하의 해외동포지원으로 월 \$2.6K 렌트로 사용한다. 2015 년 유병세 2018 년 강경화 외무부 장관들이 방문하였다. 한글반 초급 중급반이 화 목 2 회 강의한다 (사진 하 왼쪽). 강사는 모두 한글반 출신 쿠바인들이다. 또한 한류인기가 급증하여 한국드라마연구회 젊은 층도 이곳에 모여 연습한다. (사진 하 우측)



쿠바모습 이모저모



호구지책 구멍가게 생겼다. 쿠바의 교통수단이 전 근대적이다. 추력 버스를 탈 수만있으면 행운.



쿠바 대형교회 200-1000 석 많다. 훌긴대학 교수와 교제중 교수집이 허름하지만 집 있는게 행운이다.



대중교통수단: 마차 우차 오토바이 자전거 택시등 다양하다. 19 세기와 21 세기가 공존한다. 15 인승 개인택시비는 도시에따라 차이가있으나 \$400-500/하루다. 7 인승 국가소유/회사 렌트카는 하루 \$250-300 정도지만 운전기사 수수료 \$30/하루다. 자전거 택시는 10c 일반개인택시는 단거리가 \$3 불 정도지만 국가 소유택시는 단거리도 \$10 이상이다. 공항에서 세내로 들어가는 택시비는 \$30-50 정도다. 최저임금이 \$10-15 정도며 대학교수 의사등 고급인력의 은퇴연금이 월 \$8-9 불 정도다.